

▣ 본문 감상

꿈결처럼

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

→ 찔레가 피는 계절을 색채 이미지로 시각화함

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

→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

한 그루

찔레로 서 있고 싶다.

→ 객관적 상관물(임에 대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한 화자의 모습을 객관화)

⇒ 임에 그리움을 담고 있는 찔레로 서 있고 싶은 소망

<사랑하던 그 사람

조금만 더 다가서면

조금만 더 헌신적 사랑을 베풀었으면

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>

→ 사랑(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)

→ < >: 가정적 상황으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구절. 과거 회상

오늘은

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

→ 풍성하고 순수한 사랑을 상징함(사랑의 그리움, 진정한 사랑)

⇒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

먼 여행에서 돌아와

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

→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기며

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.

→ 만물이 소생하는 봄(지난날의 사랑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간직하고 싶은

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남)

⇒ 추억의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간직하고 싶음(현재의 소망)

그대 사랑하는 동안

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.

→ 사랑의 고통으로 슬퍼함. 사랑의 아픔을 행동으로 제시

⇒ 지난날의 아픈 사랑(과거 회상)

아픔이 출렁거려

→ 사랑의 슬픔과 고통

늘 말을 잃어갔다.

→ 사랑의 슬픔으로 실의에 빠짐.

⇒ 지난날의 아픈 사랑(과거 회상)

오늘은 그 아픔조차

예쁘고 뽀족한 가시로

→ 진정한 사랑은 아픔을 견뎌 내야 한다는 역설적 표현(사랑의 아픔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역설적 발상)

꽃 속에 매달고

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

⇒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수용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(현재)

슬퍼하지 말고

→ 슬픔을 극복하려는 자세

<꿈결처럼

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

→ 만물이 소생, 부활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계절. 아픈 사랑의 추억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배경

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.>

→ '송이송이 흰 짙레꽃'과 동일한 의미로 풍성한 사랑의 의미를 의미함. 짙레꽃으로 아픔을 승화시킨 성숙한 사랑을 의미함.

→ < > : 1연의 반복과 변주, 화자의 소망 강조

⇒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풍성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

▣ 핵심 정리

- 갈래 : 자유시, 서정시
- 성격 : 자기 고백적, 상징적, 희망적
- 어조 : (사랑의 승화를) 소망하는 목소리
- 시적 상황 : 아픈 사랑을 회상하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되길 소망
- 특징
 -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회상하면서 사랑의 아픔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.
 -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그 안에 가시를 숨기고 있는 찔레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.
 - 사랑의 아픔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식한 역설적 발상이 드러나 있다.
 - 의미상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대응을 이루는 수미상관 구조이다.
 - 1연, 3연, 마지막 연에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.
 - '찔레'에 사랑의 그리움과 아픔을 간직한 사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 - 변형된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.
- 제재 : 찔레
- 주제 : 아픈 사랑의 아름다운 승화/ 성숙하고 의연한 사랑

▣ 이해와 감상

찔레꽃의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아픔과 그것의 승화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. 찔레꽃은 가시를 품고 있는 꽃이다. 찔레꽃의 가시는 사랑의 아픔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. 비록 가시를 품고 있지만 찔레꽃은 봄날 흰색의 아름다운 꽃을 송이송이 피운다. 이는 사랑의 아픔을 승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 먼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이 훌가분하게 과거를 털어낼 수 있듯이, 훌가분해져서 사랑의 고뇌와 아픔까지 포용한 '무성한', 즉 성숙한 사랑이 바로 찔레꽃인 것이다